

2024 06
제233호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대덕구 홈페이지 E-BOOK으로 연결됩니다.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2023 사진공모전 수상작
대청댐 방류 야경 / 김경욱작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대덕라이프 제호 서체 : 글고운 캘리그래피 박진희 作

- 02 좋은글, 좋은 시
- 03 [호국보훈의 달 6월] 대덕의 애국지사를 만나다
- 05 구정소식
- 06 대덕구 맛집을 찾아서
- 07 [대덕구기관장협의회] 이승철 한남대 총장
- 08 열린의정
- 10 [우리 지역 기관을 만나다]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
- 11 대덕톡톡

호국 영령이시여

강옥희(시인, 대덕문학회 회원)

칼끝에 살기를 매단 무사의 눈이
그리 비정했을까
냉엄한 얼굴로 장도에 올라
갓은 고초 이겨내며 조국을 위해
역사의 뒤로 떠난 이름들

태양보다 뜨거운 게 나라 사랑이었더냐
얼음보다 차가운 게 이별이었더냐
그리운 호국 영령이시여

피맺힌 절규가 피명이 되어
혼절했던 그날의 고통을
민족은 기억하리다
총칼에도 굽히지 않았던 몸과 영혼,
비바람에 사라진 비운의 열사여!
맹독에 마비된 가슴만 남았구나

그림자 밟으며
다시는 못 올 길 재촉하며 떠나간 길
어미의 품도, 자식도 형제도 뒤로하고
힘든 상처 처절한 고통 감내하며
오로지 나라 사랑하는 마음만 품었어라

하늘이시여
조국을 지키려 빈 가슴 오직 하나,
태극기 품고
눈보라 헤치며 얼음강 건너던
저 맑은 영혼 망국의 한을 돌보소서

발행인 대덕구청장
편집인 기획홍보실장
발행처 기획홍보실(TEL:608-6603 / FAX:608-3811)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홈페이지 www.daedeok.go.kr
발행일 2024년 6월 5일(제 233호)

* 대덕라이프에 게재되는 시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됩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 애국지사를 만나다



6월은 호국보훈(護國報勳)의 달이다. 6일 현충일, 25일 한국전쟁, 그리고 29일 제2연평해전 등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뜻을 가슴에 새겨 잊지 말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덕라이프는 대덕구 내 총 8개 보훈단체 중 지난 2023년 6월호에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대덕구지회 등 4개 단체 지회장 인터뷰를 게재한 바 있다. 이번 6월호에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나머지 4개 단체 지회장을 만나 치열했던 삶의 발자취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김영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전지부
대덕구지회장

김영하 지회장은 1949년생으로 올해 만 75세이다. 1967년 해병대에 지원해 복무 중 국가의 부름을 받고 월남전에 파병됐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귀국했지만, 전장(戰場)에 무차별 살포된 고엽제 후유증으로 지금까지도 투병의 고통을 겪고 있다.

Q. 월남 파병 당시 고엽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미군 측이 우거진 수풀 등 밀림을 없애 적의 게릴라전을 막겠다는 의도로 뿌린 제초제로만 알고 있었다. 별다른 지시나 주의 사항 전파도 없었다. 모기에 물리지 않는다고 알려지면서 공중 살포 시에는 쫓아다니며 맞기까지 했다.

귀국 후 후유증 환자들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비로소 다이옥신이 지구상에서 독성이 가장 강한 물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럴 거라면 끝까지 파병을 거부했어야 했는데’라는 후회감이 수십 년이 지나도 가시질 않는다.

Q. 투병 생활의 어려움을 말해준다면?

2023년 2월 말 기준 후유증, 후유의증, 2세 환자 등 전국적으로 13만 5000여 명에 달하며, 대덕구에도 280명이나 있다. 제가 평생 약으로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기약 없는 고통을 이어가고 있다. 유공자 등록 시행 초기에는 2세들에게 유전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담감과 사회적 인식 때문에 등록을 망설이는 사람도 꽤 많았다. 자신들의 고통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것이 고엽제 환자들의 유일한 소망이다.

Q. 정부와 후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참전용사의 희생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 또한 모쪼록 후손들이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반듯이 세워가고 애국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여 가길 바란다. 그것이 나라를 위해 온몸을 내던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라 생각한다.



김진만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대덕구지회장

김진만 지회장은 1966년생으로 올해 만 58세이다. 이 단체는 2003년 개봉된 영화 ‘실미도’의 684부대처럼 특수임무 수행을 담당했던 분들로 구성돼 있다.

Q.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참여 배경 등을 말씀해 주신다면?

1951년 창설된 육군첩보부대가 시초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며,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부대에서 훈련을 받아 ‘특수임무 수행자’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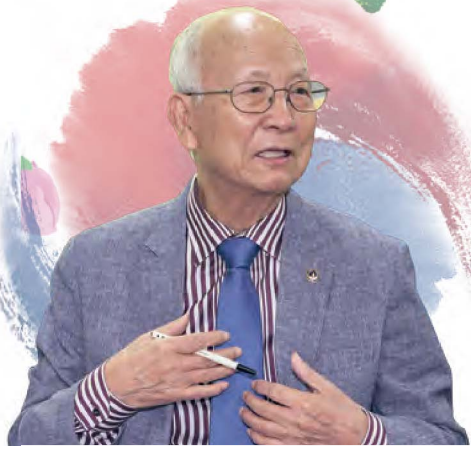
현역 군 복무를 마치고 얼마 후 ‘3년만 고생하면 평생 살 수 있다’라는 솔깃한 제안을 받고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다부진 결심으로 특수임무수행자의 길에 들어섰다. 이후 4년 6개월 정도의 생활은 보편적으로 알려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Q. 특수임무 수행에 대한 보상 및 예우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다. 설명해 주신다면?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특수임무를 수행했는데 정부가 우리의 존재를 부정했다. 첩보부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어느 서류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지워버린 군인’이라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 1999년 11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시위를 시작으로 10여 년에 가까운 끈질긴 노력 끝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이어 2008년 1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공법 단체로 정식 출범했다.

Q.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나라를 위해 희생했을 때 ‘국가와 이 사회가 자신과 가족을 정성껏 돌봐 준다’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진정한 보훈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강한 국가를 만드는 주춧돌이 된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 걸고 나설 것이다. 국민 모두가 6월 한 달만이라도 보훈 가족들에게 따뜻함과 존경이 묻어나는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예우를 해주시길 바란다.



김 운 배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덕구지회장

김운배 지회장은 1946년생으로 올해 만 78세이다. 상이군경회는 6·25참전 상이군경, 베트남 참전 상이군경, 대간첩작전 상이군경, 공상(公傷)을 입은 군경 등 국가보훈 시혜를 받는 분들이 모인 단체다.

Q. 상이군경이 되신 배경을 말씀해 주신다면?

군 복무 중 월남전에 파병돼 총알과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생사기로를 용케도 잘 넘기고 1년 만에 귀국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월남 파병 군인들처럼 고엽제 후유증으로 힘든 삶을 살아왔다.

Q. 상이군경회를 소개해 준다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국 16개 시도 지부, 전국 각 시·군·구에 230개 일반지회, 15개 특별지회가 설치돼 있다. 전국적 회원 수는 약 12만 명이며, 대덕구지회에는 824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 좀 더 세심한 보훈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Q. 후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젊은 세대들은 6·25전쟁, 월남전 파병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많은 호국영령의 희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듯이 우리 후손들도 국가적 위기에 호국보훈의 정신으로 결연히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



강 순 희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대덕구지회장

Q. 단체를 소개한다면?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 서울에 중앙회가 있으며, 전국 16개 시도 지부와 230개 시·군·구 지회가 구성돼 있다.

대덕구지회에는 36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강순희 지회장은 1947년생으로 올해 만 77세이다.

Q. 남편분께서 상인 군경이신 것 같은데 사연을 이야기 해준다면?

자원해서 월남전에 참여했는데 다행히도 부상 하나 없이 귀국했으며, 이후 경찰 시험에 합격해 경찰관으로 성실히 근무해왔다. 그러던 중 순찰 중 뜻하지 않는 사고로 순직하셨다. 그때 남편이 40대 초반, 제가 37세 였었다.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자녀들도 잘 성장하는 등 비교적 무난 하게 살아온 것에 만족한다.

Q.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국가 경제가 융성하고 안보가 튼튼해야 외세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 6·25전쟁이나 월남전 파병 등 결국 우리가 힘이 없어 겪어야 했던 아픔들이다. 후손들이 이 나라의 경제를 보다 튼튼하게 세워나가야 한다. 그것이 국가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한 호국영령들에 대한 보답일 것이다. 강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

걸어서 대덕속으로

📍 고흥류씨 정려각 및 비

대전 대덕구 중리동 498-1 소재한 조선전기 진사 송극기의 처 고흥 류씨의 행적을 기리는 정려각 및 비석이다. 1996년 3월27일 대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은진송씨 쌍청당공파 종중 소유이다.

류씨는 1371년(고려 공민왕 20)에 태어났다. 류씨는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면서 어린 아들 송유(宋愉)를 은진송씨의 증시조로 훌륭하게 키우는 등 탁월한 정절과 행적을 남겼다.

1654년(효종 4)의 명정기(命旌記)가 현존한다. 정려문에는 송준길(宋浚吉) 일가가 상의하고 조정에 아뢰어 정려의 은전을 받게 된 내력 및 부인의 행적 등이 적혀 있다.

건물은 정면 1칸, 옆면 1칸이고, 내부에 '열부고려진사송극기처고흥



류씨지려계사오월일명정(烈婦高麗進士宋克己妻高興柳氏之閭 癸巳五月日命旌)'이라고 쓴 편액이 걸려 있다.

구조는 장대석 기단 위에 팔각 초석을 놓고 짧은 원형 기둥을 세웠 으며,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비교적 규모가 크고 격식을 갖춘 정려다.

1665년(현종 4) 정려의 오른쪽 암반 위에 '열부고려진사송극기처 고흥류씨지려(烈婦高麗進士宋克己妻高興柳氏之閭)'라고 음각한 비를 세웠다.

<참고자료> 대덕 역사·문화 관광포털 및 대덕 관광안내도

오정·중리동 등 10년 이상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2011곳 대상... 긴급 구조·도로명주소 안내 등 QR코드 추가도

대덕구가 도시 미관 개선을 개선하고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나섰다.

구는 오정동과 중리동에 설치된 지 10년 이상 지난 건물번호판 2011개를 무상 교체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새롭게 교체되는 건물번호판에 QR코드를 삽입해 QR코드 스캔 시 주소 음성 안내와 경찰과 소방에 구조요청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재난안전포털 인터넷 사이트와 구청 홈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 사이트 연결 기능을 추가하는 등 구민 안전 도모는 물론 생활 편의성을 강화했다.

한편 구는 매년 예산을 확보해 동별로 순차적인 교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 왼쪽부터)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예정 건물번호판.]

“혼인·전입신고 한 번에” 원스톱 서비스 시행

혼인신고 시 구청서 전입신고도 처리

이달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에 혼인신고는 구청에서만 할 수 있고, 전입신고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만 신고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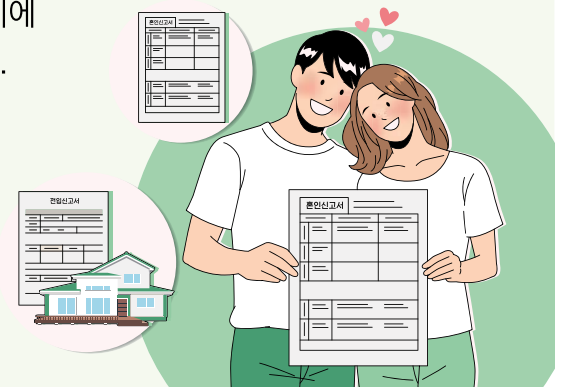
이에 구는 민원인이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에서 전입신고를 일괄적으로 접수하는 ‘혼인·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했다.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 혼인신고서와 전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담당자가 혼인신고서를 접수하고, 전입신고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서를 전송해 해당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전입 처리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문자로 안내한다.

이번 서비스는 대덕구에 세대주로 등재된 배우자의 세대로 전입을 원할 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혼인신고를

우선 접수해 전입신고와 동시에 혼인신고가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혼인신고자들에게 태극기를 증정하고 있으며, 서로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느린 우체통’, ‘혼인 기념 포토존’ 등을 운영하고 있다.



주택임대차신고제 제도,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

계약일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자발적 신고 여건 마련·추가 홍보 예정



대덕구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제도 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 시행한 제도다.

이번 제도기간 연장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추가 홍보 및 자발적 신고 여건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1년간 미신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된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단독 신고도 가능하다.

대덕구 관계자는 “추가 제도기간이 연장됐지만 30일 이내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된다”라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만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생명 존중 문화 확산 대청댐 내 자살 예방 표지판 추가 설치

대청공원 내 정자 4곳·미호교 인근 주차장 등

자살 고위험 집중 관리 시기를 맞아 대덕구는 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최경숙)와 대청댐 내 자살 예방 표지판을 추가 설치했다.

이번 표지판은 대청공원 내 정자 4곳 및 미호교 인근 주차장에 설치했으며, 표지판에는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힘든 삶 속에서 함께 생각해요’ 등 자살 예방 문구와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번호(109)를 안내해 자살 위기 상황에서 응급처치 및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구는 작년 12월 로하스캠핑장 및 인근 교량에 자살 예방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 시도자 등 위기 개입

및 사례관리, 찾아가는 심리지원,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사업, 숙박업소 등 생활 밀착시설 자살위험 환경개선 사업 등 자살 예방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042-931-1671)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청댐 내 자살예방표지판 설치 모습.]

우리지역의 **맛집**을 찾아서



30여년 전통의 민물매운탕과 추어탕 대덕구 법동 강촌매운탕

- 대전 대덕구 아리랑로 189(법동 427) / 042-631-4034
- 추어탕(돌솥밥) 1만1000원, 미꾸라지튀김 1만3000원, 우럭추어탕 1만3000원, 추어고추군만두·추어물만두 각 8000원, 단호박치즈돈가스 1만1000원
매운탕(小) 메기·새우·빠가·쏘가리 3만1000원 ~6만8000원
- 영업시간: 10:30~22:00 / 정기휴무일: 연중무휴



어릴 적 도랑이나 냇가를 훑고 돌아다니며 붕어, 피라미, 메기 등을 잡아 민물매운탕을 끓여 먹던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먹을 것이 부족한 가난한 시대에 온 식구가 맛과 영양 보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대전 대덕구 법1동 조차장 굴다리 인근에 위치한 '강촌민물매운탕'(대표 안민·윤미자 부부)은 30여 년이 넘는 오랜 시간 오직 한자리에서 민물고기 매운탕 음식점을 이어가고 있다.

이 집의 메뉴는 크게 메기 등 민물고기 매운탕과 추어탕·미꾸라지 튀김 등으로 구분되며, 매출도 반반씩 차지하고 있다.

우선 강촌매운탕은 살아있는 쏘가리, 메기 등 오로지 생물만을 사용한다.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윤미자 대표는 "민물고기 매운탕은 특유의 비린내와 흙냄새를 제거하는 것이 핵심인데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수족관에 있던 싱싱한 민물고기를 주문 즉시 손질을 해 매운탕을 끓이니 잡내 없이 진한 국물 맛뿐 아니라 전혀 부스러지지 않은 민물고기 살의 식감을 느낄 수 있지요"라고 설명했다.

초창기에는 대청댐·용담댐 지류에서 잡은 자연산 민물고기만 사용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최근에는 국내산 양식 민물고기를 공급받고 있다. 중국산 등 수입 민물고기를 취급하는 어느 식당과는 달리 검증된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맛의 비결이요, 강촌매운탕의 자부심이기 때문이다.

매운탕 맛의 핵심인 육수는 무시래기, 냉이, 팽이버섯, 깻잎과 마늘 생강을 듬뿍 넣고 고춧가루 양념장을 사용해 시원하면서 담백하다.

국내산 미꾸라지만 사용한 추어탕도 이 집의 인기 메뉴다. 수작업을 통해 곱게 갈아진 미꾸라지에

된장과 무시래기, 애기배추를 넣어 걸쭉하고 진한 국물이 일품이다. 또, 밀가루 대신 카레를 입혀 매콤한 맛을 내는 미꾸라지 튀김, 곱게 갈아진 미꾸라지를 만두 속으로 넣은 추어군만두도 바삭하고 아삭한 식감으로 별미 중의 별미다.

대전시민은 물론 전국 미식가(美食家)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IMF, 코로나19 등 특별히 경기를 타지 않고 30여 년을 이어왔다는 안민·윤미자 부부는 5년 전부터 사위 김범석씨에게 요리비법을 전수하고 있다.

이들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비법은 정직과 정성입니다. 아무리 식재료 가격이 올라도 품질을 낮추거나 양을 줄인다는 것은 양심을 속이는 것이지요"라며 "요리 하나하나의 과정에 건너뛰어 없이 기본에 충실한 강촌매운탕의 자부심을 딸과 사위가 잘 이어주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할머니의 추억과 사랑을 얼큰칼국수에 담다 법동 동양칼국수

- 대전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18(법동 282-13) / 070-4647-2902
- 얼큰칼국수 8000원, 미니족발(小) 8000원
- 영업시간 11:00~20:00(브레이크타임 14:00~16:00) / 정기휴무일: 매주 일요일



대전 사람들의 칼국수 사랑은 유별나다. 바지락칼국수, 비빔칼국수, 얼큰칼국수 등 종류도 다양해 골라먹는 재미가 쏠쏠한 칼국수의 성지(聖地)라 할 수 있다. 특히, 얼큰칼국수는 대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형태의 칼국수다.

얼큰칼국수와 미니족발 등 딱 두 가지 메뉴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음식점이 있다.

대전 대덕구 법동 대전지방국세청 인근에 위치한 동양칼국수(대표 김기란)이다.

일명 '공칼(공주칼국수)'로 불리는 얼큰칼국수 원조는 지난 1974년 대흥동 네거리 국민은행 뒤에서 문을 연 공주분식이다. 한때 대흥동 일대를 칼국수 거리로 만들었던 얼큰칼국수는 이후 대전 시내의 여러 식당에서 취급하고 있다. 법동 동양칼국수 김기란 대표도 용전동 동양칼국수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기술을 배워 독립한 케이스다.

칼국수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국물이다. 김 대표는

멸치 99%와 1%의 대파뿌리로 진하게 육수를 낸다. 멸치 본연의 맛과 대파 뿌리에서 나오는 미세한 쓴맛이 어우러지며 감칠맛을 더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려낸 육수에 고춧가루와 간장 등을 배합해 숙성시킨 양념장을 풀어 국물이 걸쭉하고 빨갛다. 여기에 계란을 풀고, 김 가루와 깨소금을 뿌린 뒤 신선한 숙갓을 넣으면 칼칼하면서도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조금은 걸쭉해 보이지만 시원하고 얼큰하다. 입안에서 맵지 않고 목 넘김 뒤끝에서 얼큰한 맛이 배어 나오기 때문에 먹고 나면 은근히 땀이 송송 나면서 속이 확 풀리는 희열을 느끼게 된다.

특히 얼큰 칼국수는 칼국수 면의 정석이라 할 수 있다. '밀가루 맛' 특유의 맛과 식감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딱 맞다.

이런저런 사연으로 칠십 가까운 나이에 음식점 운

영에 뛰어든 김기란 대표는 손님들에게 맛있고 저렴하게 그리고 청결하고 친절할 식당이 되기 위해 늘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그녀는 손님들에게 늘 신선한 반찬을 제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매일 배추겉절이와 총각김치를 직접 담그는 것은 물론 주방 및 매장을 늘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잠시도 쉬지 않는 열정을 보이고 있다.

최근 얼큰칼국수 값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려 손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김기란 대표.

그녀에게 식당이 어떤 의미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나이 들어 하는 음식 장사인데 큰 이문 남기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건강이 허락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찾아주는 단골손님이 맛있게 드시고 가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은 물론 지역 내 각 기관들이 혼연일체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2006년 9월 대덕구 내 기관·단체장으로 결성된 대덕구기관장협의회는 지난 18년간 기관 간 교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이에 ‘대덕라이프’는 대덕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20개 회원 기관 소개와 기관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대덕구기관장협의회 이승철 한남대 총장



이 승 철
한남대 총장



Q. 대덕구에 대해 평소 느끼신 점과 앞으로 대덕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대덕구는 푸르른 계곡산과 산호빛 금강을 품은 자연이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밖에도 한국수자원공사, KT&G를 비롯해 대전 1, 2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유통하기 위한 물류 시설은 물론, 경부선과 호남선이 관통하는 교통이 매우 발달한 요충지입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대전의 5개 구 중에 가장 독특하고 글로벌(지역의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보면 대부분이 대학과 지역 사회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남대는 대전·충남을 대표하는 대덕구의 명문사립대학으로서 대덕구가 앞으로 최첨단의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협업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Q. 민선 7~8기에 걸쳐 대덕구와 총 6건의 업무협약 체결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 진행된 상생협력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을 말씀해 주신다면?

한남대학교는 대덕구에 위치한 유일한 대학이다 보니 지자체와 대학 간 활발한 협력 사업들이 진행돼 왔습니다. 지난 2021년 대덕구와 한남대 유클라우드 소프트웨어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한남대가 제공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활용과 지역인재 발굴, 육성 등의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대덕구는 한남대 운동장 시설개선 사업 지원과 학교 체육시설 개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이후 대덕구는 한남대 운동장 시설개선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했고, 한남대는 시설개선을 마친 후 대덕구 지역 주민들을 위해 체육시설을 개방해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남대와 대덕구는 지자체와 대학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특히 2022년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사업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의 산업 발전을 위한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서로 협력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산업 주도의 협력적 발전모델을 만들어 내고 공학교육의 혁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의 대덕구와 한남대와의 협약과 다양한 활동은 지자체와 상아탑인 대학이 펼칠 수 있는 최고의 시너지를 내왔다고 자부합니다.

오는 2024년 12월 한남대학교 캠퍼스 내에 국가산업단지인 ‘캠퍼스 혁신파크’가 전국 최초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덕구와 한남대와의 협력을 통해 캠퍼스혁신파크가 대덕구의 경제효과, 고용효과를 유발하고 실효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협력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Q. 한남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진행현황과 향후 기대효과를 소개해달라

한남대는 지난 2019년 강원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와 함께 1차 캠퍼스 혁신파크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남대는 학교 내에 건축면적 4,400㎡의 지상 7층(A동), 지상 4층(B동)의 ‘산학연혁신 허브동’을 오는 1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캠퍼스 내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될 전망입니다.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의 혁신역량을 모아 탄생하는 캠퍼스혁신파크는 산업시설용지와 복합용지(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공원, 주차장, 도로) 등으로 구성됩니다. 예비창업 공동입주 공간과 기업 입주 공간, 상가, 메이커스페이스, 미디어룸, 스튜디오, 영상 편집실, 세미나실 등이 들어서며 입주 업종은 바이오화학분야,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 영상 제작, 의료정밀 광학기기 제조업 등 ICT, 금속 가공제품과 자동차 및 운송장비 제조업인 기계·금속 분야, 지식서비스 분야 등의 기업체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캠퍼스혁신파크는 생산유발효과 2.13조원, 고용효과 6714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덕구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캠퍼스혁신파크 인근은 대덕구 도시재생사업 지구에 포함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혁신파크와 더불어 대덕구 지역도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끝으로 대덕구 및 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올해 한남대학교의 새로운 총장으로서, 우리 대학과 지역 사회가 함께 번영하기 위해 ‘지역과 함께, 세계로 대전환’이라는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한남대는 대전의 대덕구에서 68년이 넘는 긴 역사를 통해 지역 사회와 더불어 숨 쉬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대덕구의 발전은 한남대의 발전과 맞물려 있으며, 이 두터운 상생의 관계가 오늘날 한남대를 대전·충청 지역의 명문 사학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덕구민과의 깊은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고, 우리 대학이 지역사회에 보다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저의 굳은 약속을 전합니다. 한남대가 대덕구민의 마음속에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한남대가 세계 무대로의 큰 도약을 준비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대덕구민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더욱 발전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한남대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9대 대덕구의회 전반기 5대 뉴스



2022년 여름 대덕구민의 선택을 받고 출범한 제9대 대덕구의회가 어느덧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의원들은 그동안 ‘대덕구민의 대변인’이란 무거운 책무와 함께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의정활동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신발끈을 더욱 조여 매기도 했고 구슬땀을 흘리기도 했다. 하반기 시작에 앞서 전반기 동안 이뤄진 주요 의정 및 의회 활동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도 구민과 지역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해본다. 다음은 의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제9대 대덕구의회 전반기 5대 뉴스이다. [편집자주]

01. 제9대 대덕구의회 전반기 원구성 ‘위기를 기회로’



제9대 대덕구의회가 초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은 ‘전화위복(轉禍爲福)’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야 간 이견으로 다소 아쉬움을 남겼던 전반기 원구성 과정 이후 ‘하모니 의회’로 화합과 존중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덕구의회는 정당·정파와 무관하게 각종 의정활동에 의원 모두가 적극 참여하며 지역정가에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02. 한국타이어 화재 피해보상·대책 마련 촉구 성명



한목소리로 대덕구민을 위한 이익을 대변해 주목받기도 했다. 대덕구의회는 지난해 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 현장에서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는 한편, 성명을 통해 근로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속 정당과 지역구 구분 없이 의원 전원이 피해 근로자와 주민의 목소리를 사측에 전하는 데 힘을 모았다.

03. 대전 최초 징계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 제정



대전지역 의회 최초로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대덕구의회는 지난해 6월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해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로써 징계 범위에 따라 최대 3개월간 의정활동비 등 지급이 중단된다. 기존의 경우 구금상태에 한해 지급을 제한해 왔다.

04. 청양군 수해 복구 지원에 의원·사무과 직원 한뜻



지난해 여름 충남 청양군 수해 농가에서 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 의원 8명 전원과 직원 16명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농가에서 호우로 피해를 본 농작물을 정리하며 농민들의 일손을 도왔다. 또 격려 물품을 전달하고 피해 농민들을 위로했다. 김홍태 의장은 “미약하나마 피해 복구에 보탬이 되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05.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뜨거운 마음 전달”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두 해 연속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2022년과 2023년 겨울, 의원들과 직원 등 구성원이 합심해 연말연시 사랑의 연탄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한 것이다. 김홍태 의장은 “동료 의원뿐 아니라 직원분들이 함께해 뜨거운 마음으로 이웃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달했다”면서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대덕구의회, 올해 첫 정례회 일정 돌입

6월 3일~19일 제275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제1회추경·일반안건 심사 등

대덕구의회가 올해 첫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구의회는 6월3일을 시작으로 19일까지 17일간 제275회 제1차 정례회를 진행한다.

구의회는 이 기간 구정질문을 비롯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에 나선다. 또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검사 결과에 대한 승인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특히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 등 집행부 측으로부터 처리 사항과 향후 계획을 들을 방침이다. 민선8기 대덕구가 중반에 들어선 만큼, 하반기 진행될 숙원사업 계획과 대책에 대해 주로 질의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약 484억 원 규모로 편성된 올해 첫 추경 예산안과 △야외운동 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효서 의원)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대웅 의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준규 의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전석광 의원)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 조례안(양영자 의원) △안전 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유승연 의원) 등을 심사한다.



기고

지방의 희망, 대전형 대책으로 인구문제에 대응해야



김 기 흥 의원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지방소멸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상태다. 반면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돼 내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지방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며 지방소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국가균형특별법’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필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지방소멸 대책을 대전시와 대덕구에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저출산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주거비 부담이다. ‘2022년 신혼부부통계 결과(통계청, 2023년 12월)’에 따르면, 주택 소유 부부의 자녀 비중이 무주택 부부보다 10.1% 높다. 이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전도시공사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전형 청년주택(다가온)’을 제공하고 있지만 공급량이 부족하고 경쟁률이 높아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전시는 공공주택 확충에 더욱 힘써야 한다.

두 번째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 복지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대덕구는 2022년 기준으로 의료기관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대전 5개 구 중 가장 적다. 반면 노인인구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앞두고 있어 의료격차 해소와 의료수요 대비가 절실하다. 이에 대덕구는 대전시에 제2대전의료원 설립을 건의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의료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방문의료지원 확대 등 ‘대전형 마을 돌봄사업’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대전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국 1000대 기업 지역별 매출액 및 전국 비중 현황(부산상공회의소, 2022년 10월)’을 보면, 1000대 기업 중 대전에 위치한 기업은 12개에 불과하며 53.1%의 기업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수기업 유치가 시급하다. 대전시는 국비 3000억 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대전산단을 디지털 기반의 최첨단·친환경 산단으로 탈바꿈시키는 대전산단 대개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우수기업 유입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대개조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국비 확보가 더디게 진행, 대전시와 대덕구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들 대책이 완벽한 해답은 아닐 수 있지만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해결 방안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대덕구를 포함한 대전시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변모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방법>

- **대 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아동 / 소득수준 무관
- **돌봄유형** : - 상시돌봄 :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인 돌봄
- 일시돌봄 : 긴급사유 시 비정기적 돌봄
- **운영시간** : 주 5일 / (학기 중) 10:00~19:00 (방학 중) 09:00~18:00
- **이 용 료** : 월10만원 이내 ※ 센터별 상이하므로 문의 필요.
- **이용방법** : 학부모가 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 **운영인력** : 2명 / 센터장(상근) 1명, 돌봄교사(종일) 1명

대덕구에 거주하는 맞벌이를 하는 A씨 부부. 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지 못해 고민이다. 오전에는 학교에 보내지만, 오후 시간이 문제다. 오후 시간 내내 학원에 보내자니 비용 부담은 물론 아이에게 짐을 지워 주는 것 같아 걱정이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게 하자니 컴퓨터, 스마트폰에 몰두하게 될 것 같아 걱정이다.

대덕구에는 이 같은 '돌봄 공백'을 해소는 물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사교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다.

지난 2019년 11월 대전시 최초 송촌동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개소한 데 이어 신탄진, 대화동, 송촌동 2호점을 추가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선생님과 기본 학습지도와 숙제는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기가 많다.

우리 대덕구의 돌봄 서비스를 책임지는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 알아보자.

[편집자주]

대화동 다함께돌봄센터

대덕구 동심1길 85, 1층(대화동) / 연락처 : 042-863-0910



대화동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주도적 아동 돌봄을 위한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급식·간식 제공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다양한 특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학습지도, 안전교육, 급식·간식 지도, 돌봄과 놀이 지도와 같은 기본 활동과 △원어민영어 △주산 암산 △칼림바 △한자 △놀이 체육 △과학 △미술 치료와 같은 특별활동은 물론 △줍깅 데이 △민속놀이 △요리 활동 △체험 학습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꿈꾸는 대화작은도서관'을 이용한 독서 활동은 문해력을 높이고 독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선사하고 있다. 또한 '독서 골든벨' 활동을 통해 아동들의 성취감을 높이고 있다.

송촌동 다함께돌봄센터

대덕구 동춘당로94번길 11, 5층(송촌동) / 연락처 : 042-624-0901



송촌동 다함께돌봄센터는 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아동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편안한 돌봄 제공을 우선으로 한다.

△개인 숙제 위주의 '기초학습지도' △시·만화·책 표지 그리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독후활동지도' △나만의 키링을 제작하는 '3D 펜 교실' △동요·단어 카드 게임 △애니메이션 시청을 통한 흥미 유발 '영어교실' △책갈피, 홀로그램 영사기, 우드 금고 만들기 등 아동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창의 미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 밖에 야구, 축구 신체활동을 통한 또래 아동 간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활발한 신체 움직임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아동들이 다니고 싶은 센터를 만들기 위해 '아동자치회의'를 통해 아동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송촌동 2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대덕구 송촌북로 36번길 10, 2층(송촌동) / 연락처 : 042-634-5004



송촌동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은 '올바른 인재 양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의 정착'이라는 슬로건 아래 방과 후 쾌적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아동들이 교육활동과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독서 활동', '논술', '한국사'를 배우며 자기 생각을 확장 시키고 '사자소학'을 배우며 바른 인성과 예절을 교육한다. 또한 △보드게임 △과학실험 △북아트 △종합공예 △놀이체육 △창의미술 등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 같이 함께 활동하며 협동심과 배려를 배운다.

신탄진동 다함께돌봄센터

대덕구 대청로 47, 4층(신탄진동) / 연락처 : 042-933-7788



신탄진동다함께돌봄센터는 '온마을이 함께하는 든든한 돌봄, 질 높은 돌봄 서비스로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출결 및 귀가 지도 △일상생활 및 급·간식 지원 △자유 활동 및 휴식 제공 △신체활동 및 또래 놀이 △숙제 및 독서지도 △아동 안전 교육 및 권리교육 △아동 상담 및 보호자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해 아동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특별프로그램으로는 △주민자치회 지역주민 힐링프로그램 △명절, 어린이날, 방학 등 이벤트 행사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및 멘토링 △아동정신건강증진 집단프로그램 △토탈 공예 △디지털 배움터 △보드 게임 △외부 강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치매 환자 실종 ZERO

스마트태그 무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어르신

지원규모

100명 지원 / 1인당 1대 지원(신청순)

자격기준

· 주민등록상 대덕구 주소지인 치매환자

· 관리가능한 보호자 필요(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

신청기간

2024. 5월부터

신청방법

대덕구치매안심센터 예약문의 후 방문 신청

기타문의

대덕구치매안심센터 ☎042-608-5426

블루투스 기능으로 실시간 위치 파악이 가능해요.

2024년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 지원사업 지원 안내문

초록우산에서는 영아의 생명존중과 권리 인식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생명의 탄생부터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부모의 신분과 능력 때문에 영아의 양육 환경이 차별 받지 않도록 초록우산이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안내

1. 사업명: 2024년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청소년부모(미혼모), 외국인 부모, 장애 부모 가정 중 임신 6개월~ 생후 36개월 영아 양육가정

3. 지원인원: 총 00명

4. 지원내역

- 임신, 출산비용 지원: 출산 및 입원 치료비, 제왕절개 수술비 등
- 산후조리비용 지원: 산후 조리원 이용비, 산모도우미 파견비 등
- 영아 돌봄비용 지원: 예방 접종비, 검진비, 분유 및 기저귀 구입비 등
- 기타 비용 지원(생활비, 주거비 등)

5. 지원금액: 1세대 최대 200만원(출산비를 포함한 경우만 최대금액 지원)

사업안내

1. 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월) ~ 7월 1일(월)

2. 신청방법

- 1) 사례지원신청서(붙임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붙임 3)
- 2) 주민등록증 사본(뒷자리 삭제), 외국인등록증 사본, 장애인등록증 사본 중 1종
- 3) 위 서류 발급이 불가할 경우 제출 전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 제출: kwf26@childfund.or.kr

4. 참고

- 모든 지원은 소정의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 결정됩니다
- 국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유를 꼭 확인바랍니다
- 본 사업은 비밀이 보장되며, 지원을 위해서만 정보를 수집합니다
- 초록우산에서는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정책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5. 문의: ☎ 042-477-4072

행정안전부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보장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하길 잘했다!

풍수해
보장해

정부가 보험료 70% 이상 지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

대상 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돈든한 정책보험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정)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가입문의

국민재난 안전포털

DB손해보험 044-205-5990

현대해상화재보험 044-205-5991

삼성화재생명보험 044-205-5992

NH농협손해보험 044-205-5994

meritx 메리츠화재 044-205-5996

KB손해보험 044-205-5993

한화손해보험 044-205-5995

보험 자세히 알아보기
www.safekorea.go.kr

6월 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

납부 기간 : 2024. 6. 16 ~ 2024. 7. 1.

납부방법

금융기관 방문납부

계좌이체 납부

A R S 납부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및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부과내역 조회 및 납부 가능

가상계좌 번호로 이체(고지서 앞면 하단에 기재)
지방세입계좌 이체(입금은행: 지방세입, 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ARS(☎ 142-211) 통화, 신용카드 납부 및 가상계좌번호 안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 사이트 접속 납부

금융기관에 신청한 자동이체 계좌에서 납기 내 자동이체 (관할 자치단체, 은행, 위택스 등에서 신청가능)

※ 납세의무자 외 타인이 자동차세 납부하려는 경우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납부 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하나 사용가능 카드 및 포인트, 차감액 및 차감시점 등 해당 카드로 별도 문의

※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 등 불이익 발생.

문의 : 대덕구 세원관리과(☎042-608-6248)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2024년 부모공동양육의 아바효과 영상·수기 공모전

덕구 아빠의 행복한 일상

공모기간 2024. 6. 1.(토) ~ 6. 30.(일)

사업대상

육아참여 경험이 있는 대덕구 거주 아빠

공모유형

아빠의 육아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① 영상 콘텐츠(동영상) 3분 이내 /
② 양육 에세이(수기) A4 2 ~ 5장 이내

응모방법

이메일 응모(mother5297@naver.com)

선정발표

2024. 7. 6.(토) /
대덕구육아복합마더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시상식은 타 이벤트 시상과 함께 9월 초 진행

시상내역

영상·수기 각각 대상 1명	10만원 문화상품권
최우수상 각 1명	5만원 문화상품권
우수상 각 2명	3만원 문화상품권
아이디어상 각 5명	1만원 문화상품권

문의전화

대덕구육아복합마더센터(대청로 47)
☎ 042-934-5297

공고문 바로가기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건강검진으로 내 일상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2024년 건강검진 수검 안내

검진주기

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짝·홀수연도 구분하여 실시

검사항목	대상자
키,몸무게,비만도,허리둘레,혈압,시력,청력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흉부방사선 촬영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요검사(요단백)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혈액검사 (혈액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 AST, ALT, 감마지티피, 혈청크레아티닌검사, 신사구체여과율)	콜레스테롤(4종) 검사는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에 대하여 4년마다
간염검사	40세
골밀도 검사	54,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66세 이상 2년마다
생활습관평가	40, 50, 60, 70세
정신건강검사(우울증검사)	20, 30, 40, 50, 60,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세
구강검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문의전화

검진기관 건강보험공단(☎1577-1000),
대덕구 보건소(☎042-608-5490)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우리 아이 평생건강을 지켜주세요!

대상
생후 14일부터 7개월까지 영유아를 검진 시기별로 선정 (총 8차)

검진절차

건강검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 가정에서 「영유아건강검진표」 발송 (전자문서, 우편발송)
전자문서 열람 절차: 네이버앱 > 전자문서 알림 확인·클릭

건강검진 실시

대상자

해당 검진시기에 검진기관 예약·문의 /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 검진기관 찾기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건강IN > 자녀건강(검진) > 영유아 검진기관 찾기

결과 통보

검진기관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와 통보: 검진 즉시

문의

대덕구보건소 보건관리팀
☎ 042-608-5474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사업 실시

● 기 간 : 2024.11. 29.(금)까지
● 대 상 : 동물등록 된 3개월령 이상된 건강한 개와 고양이
● 사업량 : 700마리
● 내 용 : 반려동물 동반해 지정병원 내방
● 지정병원 :

동물병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송촌선비동물병원	대덕구 송촌북로4번길 15(송촌동)	042-637-7572
로하스 동물병원	대덕구 덕암로265번길 31(덕암동)	042-935-7509
신탄진 동물병원	대덕구 신탄진로 797 (신탄진동)	042-931-7582
이승재 동물병원	대덕구 신탄진로 842(신탄진동)	042-932-0970
추영재 동물병원	대덕구 한밭대로 1017(오정동)	042-628-7588

● 접 종 비 : 마리당 5천원(자부담)
● 문 의 : 대덕구 에너지산업과 ☎042-608-6953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2024년 대덕구 사진 공모전

모먼트 더 대덕

공모내용

① 2024년 대덕구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축제 현장과 사람들의 모습 등을 생동감 있게 담은 사진
② 대덕구에서 즐거운 일상을 즐기는 사람들을 담은 사진

공고기간

2024. 3. 15.(금) ~ 10. 28.(월)

접수기간

2024. 10. 7.(월) ~ 10. 28.(월) 18:00까지
※ 기간내 제출하지 않을 시 접수 미인정

접수부문

일반(DSLR, 핸드폰 카메라 등), 드론

응모자격

전 국민 누구나(지역/연령 무관, 팀 접수 불가)
출품수량: 1인 각 3점 이내(부문 중복참여 가능)

시 상 금

총 700만원(일반 총 250만원, 드론 총 450만원)

구분	작품 수	주요내용
일반	1인 각 3점 이내	· DSLR을 포함한 모든 사진 촬영이 가능한 기기로 찍은 사진 · 메타정보(EXIF)가 없는 작품은 인정하지 않음(촬영일 필수) · 드론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모든 촬영은 드론 및 항공 관련법 등을 준수하여야 함 · 메타정보(EXIF)에 촬영일시, 위도, 경도가 모두 나타나야 함 · GPS가 없는 기종은 경우 촬영장소 인증자료 제출 필수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① 제목: [2024년 대덕구 사진 공모전 (일반/드론) 본인 이름]
- 예시: [2024년 대덕구 사진 공모전_일반_홍길동]
② 파일명: 촬영일자_촬영장소_행사명_본인 이름_작품번호
- 예시: 2024. 4. 13_대청공원_대덕물빛축제_홍길동_1

접 수 처

jbr0515@korea.kr

발 표 일

2024. 11월 중

발표방법

개별통보 및 대덕구청 홈페이지 게재

시상시기

2024. 11월 말 (최우수, 우수, 장려 시상식 참석 필수)

문의사항

대덕구 기획홍보실(☎042-608-6533)